<특집: 특수도료 시장분석>

“ 페인트산업 색깔이 없다 ”

■시장현황
■수출입 및 기술도입 현황
■불소수지 도료 ■PCM 도료 ■전착도료
■EMI 도료 ■UV 도료 ■분체도료 ■제관용 도료

이제 페인트시장도 고기능 · 특수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1조원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페인트산업의 국내 화학산업내 위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국내 페인트산업은 그간 수요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동반 상승해 왔으나, 비약적인 발전에 걸맞는 난제를 안고 있다.
기술축적 부족, 수출경쟁력 약화, 전문인력 부족, 단절된 정보채널 등 문제점들은 결국 국내 페인트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높이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페인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자사만이 내세울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제품개발이 선결돼야 하며, 특히 수요패턴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특수(고기능)도료 시장은 아직까지 개념정립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범용이 아닌 도료를 고기능 · 특수도료라 할 때 기업별로 제품은 다품종이지만 상품화는 되지 않아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본고에서는 시장이 일정 수준 형성돼 있는 상품을 선별, 불소수지 · PCM · 전착 · EMI · UV · 분체 · 제관용 도료 시장을 분석했다.
한편, 이외에도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내열도료 · 방화도료 · 고탄성도료 · 시온도료 · 대전방지용도료 · 방오도료 · 내방사선도료 등 여러 타입으로 분류되나,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화학저널 1992/12/1>